

11월호

Contents

발달장애인 1박 2일 힐링캠프 2

하반기 “체험 김치 담그기” 글잔행하며..... 5

강북센터 실무자 역량강화 워크숍 7

바차 활동보조인 자체교육 9

자립생활주제 한옥마을 체험 11

한국 DPI 장애인 당사자 심포지엄에 참석하다. 14

(칼럼) 신체변형 장애의 개념과 요인 16

이달의 정보 18

이달의 시 21

강북장애인자립생활센터 CMS자동이체 신청서 22

광고 23



발달장애인 1박 2일 힐링캠프

주영경



강북장애인자립생활센터에서는 서울시센터지원사업의 일환으로 2017년 10월 26일(목) ~ 27일(금) 대성리 청운캠프로 발달장애인 1박 2일 힐링캠프를 다녀왔습니다.

이번 힐링캠프에 참여하게 된 3명의 발달장애인과, 보조인(보호자), 스텝까지 총 8명이 함께 1박을 하게

되었고, 드디어 10월 26일(목) 캠프를 떠나는 날이 다가왔습니다.

보조인(보호자) 동행이 어려운 참여자는 센터에 모여 스텝과 함께 집결지로 이동했습니다. 집결지는 바로 상봉역 대합실!!! 이동하는 내내 설레는 마음을 감추지 못하는 참여자 신**님과, 무덤덤한 표정인 신규참여자 임**님까지 ~

대성리에 도착한 뒤, 일단 배고픈 배를 채우기 위해 근처 설령탕 가게에서 맛있는 점심 식사를 마친 뒤, 짬뽕을 정해 바비큐 파티에 필요한 식재료를 구입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내 짬뽕 권**님은 어찌나 적극적이신지, 요리조리 카트를 끌며 물건을 구매하곤 했습니다.





이렇게 4팀이 함께 구매한 식재료를 가지고 최종목적지인 청운캠프로 GO ! GO !!

도착해서 방을 배정한 후, 후다닥 식재료 및 짐을 정리하고 다시 모여 본격적으로 프로그램을 진행했습니다.

날씨 좋고 ~ 공기 맑은 대성리 청운캠프에서 공놀이를 스타트로 주변 개천구경, 노래자랑, 보드게임(도미노, 젠가)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하니 어느새 참여자들의 얼굴에

는 웃음이 가득했습니다.

대부분 참여자들이 남성이다 보니, 역시 최고 인기 있는 프로그램은 축구놀이였습니다. 숙소 앞, 인조잔디로 이루어진 족구장(?)을 이용해 수비하고, 공격하고

어느새 날이 어둑어둑해져 참여자들이 실내로 들어와 자유롭게 TV를 보고, 보드게임을 하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드디어 ! 기다리고 기다리던 바비큐 파티시간 ~

다 같이 둘러앉아 구워먹을 고구마에 호일도 씌우고, 만찬 준비에 정신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하루가 지나, 집으로 돌아가는 날 ! 아침 일찍 일어나 주변 산책하고, 잠깐의 휴식시간

마지막으로 참여자들과 함께



둘러앉아 1박 2일 캠프를 하며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을 그림으로 그려보았습니다. 축구, 마트장보기, 바비큐 파티 등 많은 사람들과 함께 여행을 와서 좋았고, 다음번에도 또 오고 싶다는 마무리 평가까지 마쳤습니다.

참여자분들의 기억에 남는 추억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파이팅^^



하반기‘체험 김치 담그기’를 진행하며.....

문지수

“오늘 드디어 체험 김치 담그기네요! 파이팅 합시다~.”



그렇다, 오늘 11월 17일 금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강북센터 교육실에서‘하반기 체험 김치 담그기’를 진행하였다.

머리를 잘끈! 묶고 비닐장갑과 앞치마를 착용한 후, 본격적으로 “체험 김치 담그기”의 참여자를 맞이할 준비를 하였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셨어요?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오OO입니다~.”

“김OO이에요.”

“여기에 고무장갑이랑 앞치마 준비했으니까 착용하시면 되고요. 편하신 자리에서 체험해주시면 되요.”

안내에 따라 참여자들은 각자 원하는 자리에서 양념을 절임배추에 버무리는 체험을 하였다. 자원봉사자 선생님들을 비롯하여 스태프들도 같이 체험자와 함께 절임배추에 양념을 버무리기 시작하였다.





‘체험 김치 담그기’를 통해 김치를 처음 담그는 체험자분들이 많았었고, 활동보조 인분들과 스텝들의 도움을 받아 열심히 김치를 버무리시는 모습을 보니 뿌듯한 마음과 대견한 마음을 느낄 수 있었다.

“절임배추를 하나씩 하나씩 꼼꼼히 묻혀 주시면 되요. 절 따라서 같이 해 볼까요?”

“와~, 잘하시네요~~~, 그렇게 해서 양념을 꼼꼼히 하얀 부분에 묻혀 주시면 되요.”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라는 말이 있듯이 추OO 씨는 ‘잘한다...잘한다...’라는 칭찬에 힘입어 적극적으로 열심히 절임배추에 양념을 버무리는 작업을 뿌듯한 마음으로 체험을 하셨다. 그 모습을 바라보는 스텝들은 귀여움과 대견함을 느꼈다.

때마침 단기체험홀 입주자인 이OO씨의 입주 날짜가 ‘체험 김치 담그기’와 맞물려 이 OO씨도 김치 담그기 체험을 하고 자기가 담근 김치를 가져갈 수 있었다.

“OO씨~, 김치 버무린 적 있으세요?”

“아뇨~, 없는데....어려울 것 같아 보이는데..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아~~~, 그러면 제가 알려 줄 테니까 같이 해볼까요?”

“네..!”



하반기 체험 김치 담그기가 끝나가기 무렵 한 두 분씩 포장한 김치를 들고 나가시는 참여자들의 모습을 보니 왠지 모를 뿌듯함을 있었다.

이번 “하반기 체험 김치 담그기”에 참여한 모든 분들과 저희 센터 스텝들~! 모두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Have a nice day♪

강북센터 실무자 역량강화 워크숍

주영경



2017년 11월 24일(금) ~ 25일(토) 강북센터 1박 2일 실무자 역량강화 워크숍을 다녀왔다. 이번 워크숍은 에이퍼스트호텔 명동으로 갔는데, 호텔 내에 별도의 회의실이 마련되어 있어 워크숍 진행에 최적화된 곳이었다.

사무실 오전 업무를 본 뒤 12시경, 목적지로 향하는 길이 점심시간과 겹치는 바람에 도착하자마자 근처에서 식사를 한 뒤, 호텔에

가서 체크인 시간만을 기다렸다. 오후 3시, 기다리던 체크인 후 준비한 강의 자료를 훑어보고, 호텔 여기저기를 구경하니 강의시간이 다가왔다.

현장세팅을 위해 후다닥 회의실로 내려갔으나 이게 무슨 날벼락인가... 업체 측 실수로 회의실을 타 기관과 중복 대여 해준 것이 아닌가? 곧장 업체와 소통 후, 우린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된 회의실을 사용하게 되었다. 아담하면서도 깔끔한 분위기가 아주 마음에 들었다. 그렇게 시간 맞춰 외부강사님께서 도착하시고, 커피를 마시며 약간의 휴식시간을 보냈다.

이번 실무자 역량강화 교육을 위해 전)송의여자대학교 강우진 교수님께서 함께 해주셨으며, 가장 기초적이면서도 어려운 '장애인자립생활센터의 이해'라는 주제로 3시간 동안 강의를 듣게 되었다.

우리가 몰랐던 정보에 대하여 습득하고, 앞으로 센터가 나아가야 할 방향





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해 보는 유익한 시간이었다. 그렇게 강의가 끝난 뒤, 호텔 주변에 있는 식당가에서 꿀 같은 저녁식사를 했다. 강의시간이 그리 길지 않았던 터라, 궁금했던 것들에 대하여 자유롭게 여쭙보곤 했다.

저녁식사를 마친 뒤, 간단한 간식거리를 구매하고 숙소를 향했다. 피곤하기도 했지만 1년에 한 번 있는 워크숍이라 사실 많이 들떠 늦은 시간까지 수다를 떨었다. 그렇게 1박이 지나 이른 아침, 따로 약속하지는 않았지만 소장님과 직원들이 비슷한 시간대에 함께 호텔조식을 먹었다.

식사 후, 실무자 워크숍 평가회의를 위해 회의실에 둘러앉았다. 가장 만족도가 높았던 부분으로는 쾌적한 호텔환경이었으며, 외부강사 섭외를 통한 교육진행, 일상생활에서 벗어나 힐링한 것 등 다양한 의견이 나왔으며 끝으로 강북센터 실무자 역량강화 워크숍을 마쳤다.

제4차 장애인활동지원인 자체교육

전난희



2017년 11월 01일 오전 10시, 오후 2시로 나뉘어 '4차 장애인활동지원인 자체교육'을 강북장애인자립생활센터(이하 강북센터) 1707호 교육실에서 실시하였다. 먼저 2차 교육의 내용을 살펴보면 개인정보보호, 성폭력 예방교육과 응급안전교육, 그리고 구비 추가지원사업에 대한 교육이 있었다. 이어 3차 자체교육의 내용은 부정수급 관련된 자세한 지침과 모니터링 진행방법 및 구형단말기에 교체, 그리고 일정표와 서류작성에 중요성 등에 대한 내용이었다.

11월 01일 오전 10시, 오후 2시에 있었던 '4차 장애인활동지원인 자체교육'에서 강조했던 교육 내용으로는 무수히 강조할 수밖에 없는 부정수급 관련된 내용과 직접적인 실사례를 예로 들어 다시 한 번 강조하는 내용과



작성서류의 제출에 대한 중요성으로 그 내용이 이루어졌다.

부정행위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그 첫 번째로 활동지원인이 혼자 이용자에 바우처카드를 이용하여 부당하게 결제하는 행위와 두 번째로는 바우처카드를 타인에게 양도 또는 매매 등 부당하게 바우처를 사용하는 행위,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이용자와 활동지원인이 단합하여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고 바우처를 결제하는 행위 등이 있다. 그 밖에도 부당한 방법으로 바우처를 사용하는 행위는 부정행위에 포함된다.



활동보조 작성서류는 일정표와 주간업무보고 두 가지가 있는데 일정표는 매월 5일 안에 작성하여 제출해야 하고, 주간업무보고는 작성하여 매월 말에 제출하여야 한다. 센터 업무시간이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이므로 되도록 업무시간 안으로 제출하는 것이 좋다.

2차, 3차에 이어 이번 4차 교육도 오전 오후로 나누어 진행함에 따라 활동보조인 선생님들께서 여유를 갖고 교육에 참여하실 수 있어 마음이 훨씬 편하신 것 같았다.



마지막 장애인활동지원인 자체 교육이 12월에 있을 예정이오니 그동안 참석 못하신 분들은 필히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전하며 이 글을 마치려 한다.

< 자립생활주택 >

1박 2일 한옥스테이 체험

김다희



10월19일~20일 1박 2일 한옥스테이 체험을 진행 하였다. 1권역(노원IL, 남은자IL, 양천IL, 해남IL) 입주자분들과의 교류 여행을 목적으로 여행을 다녀왔으며, '한옥스테이'라는 여행의 테마를 정하여 입주자분들이 경험해보지 못했던 한옥의 맛을 체험하기 위함 이였다.

첫 만남의 장소는 공교롭게도 안국역 앞에 위치한 종로경찰서 앞 이였다. 다들 경찰서 앞에서 뭐하냐는 거냐며 농담 섞인 말도 해가며 다른 입주자 분들을 기다렸고, 드디어! 모든 입주자 분들이 모이고 조금은 이른 점심을 하기 위해

식당으로 이동을 하였다. 이동을 하는 내내 돌이 섞인 길가가 많아 전동휠체어가 이동하기에 불편한 점도 있었지만 여행을 한다는 생각 때문인지 모두들 웃음을 잃지 않고 이동하는 모습을 보였다.

드디어 식당에 도착! 휠체어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있다는 점을 식당에 미리 고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식당 안은 자리배치가 되어있지 않았다. 휠체어를 이용하시는 분들을 위해 의자 및 공간배열을 다시 하려고 하자 식당 직원이 다른 손님들에게 불편을 끼치니 배열을 바꾸지 말아 달라고 짜증을 내며 말하였다. 그 말을 들은 모든 입주자분들의 얼굴이 찌푸려질 수밖에 없었고, 다음번 프로그램을 진행할 때는 이런 세세



한 부분까지 신경을 써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으며, 마음상한 입주자분들을 생각하니 내 마음도 언짢았다.



문 게스트 하우스에 도착!

‘나는 ○○○입니다’ 나를 찾는 단어를 종이에 적어 보여주면 다른 입주자분들이 아! 저 알아요! 저 분인 것 같아요! 하며 열심히 이야기를 해주시는 자기소개 레크리에이션을 진행하였고 멋지게 나를 소개하는 단어들을 적어보이며 재미있어 하는 모습을 보이셨다.

자기소개 후 사물놀이, 고추장 만들기를 진행을 하며 새로운 경험에 “다시 또 오고 싶어요 정말” 이란 말을 듣는

횃수가 많아 젖고 같이 갔던 코디네이터 선생님들과 뿌듯한 마음을 느낄 수 있었던 목소리였다.

사물놀이는 재미가 없을 거라며 단정 짓던 입주자 정○○씨는 제일 열심히 강사님의 말에 경청을 하며 장단을 맞춰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모습 이였고, 입주자 김○○씨는 악기를 만지는 것이 처음이라며 사물놀이의 체험시간이 끝나고 나서도 북, 징, 쥘리 등을 함박웃음을 지으시며 치시는 모습이 가장 인상 깊게 남았던 것 같다.

‘얼씨구 좋다’ 추임새에 맞춰 각자 악기를 들고 박자를 맞춰가며 완성한 우리들의 풍악소리!

강사님의 칭찬에 힘입어 더 욱 더 열심히 장단에 몸을 맡기는 입주자분들! 모두 수고 많으셨어요~



예쁘게 고추장도 담고~ 맛도 보며 즐거웠던 체험은 끝이 나고 본격적으로 레크리에이션을 통한 입주자분들의 교류형성을 위해 준비한 많은 게임들! 준비한 게임은 5가지 정도였으나 복불복 게임의 열광적인 반응으로 인해 준비한 게임 중의 두 가지 게임만을 진행하였다. 복불복 게임과 인물 맞추기 게임 이었는데 조 별로 나눠 상품이 걸려있는 게임이다 보니 모든 입주자분들이 상품을 향한 열정을 아낌없이 보여주셨던 시간이 되었고, 끊임없이 웃었던 시간 이였다.



또, 상품을 못 받은 분들을 위한 장기자랑 타임도 가졌는데, 의외로 많은 입주자분들에게 인기가 좋았던 시간 이었다. 상품을 못 받은 분들도 아쉬워하지 않게 준비해 둔 양말 선물을 받을 수 있게 해드렸고 모두 좋은 기분으로 게임은 마무리가 되었다.

“자, 모두들 여기보세요~ 찰칵!”

마지막 자유 다과 시간을 가지며 어색했던 첫 만남의 분위기는 온데간데없어 지고 여유롭고 행복한 분위기만을 느낄 수 있었던 마지막 교류시간을 마쳤으며, 1권역 교류여행 1박 2일 한옥스테이의 첫날은 그렇게 지나갔다.



(20일) 둘째 날! 한복을 입고 경복궁 투어를 진행하였다. 예쁜 한복에 다들 웃음을 감추지 못하고 신나하시며 돌아다니시는 모습 이였다.

“여기에서 사진 찍어주세요!”

저희 입주자분들은 돌아다니시며 거의 이 이야기만을 하였고, 나중에는 궁이 너무 커서 돌아다니기 힘들지만 다시 또 방문했으면 좋겠다는 말을 수시로 하셨습니다.



다. 또한 자기의 사진이 예쁘게 잘 나왔는지 서로서로 경쟁하듯 확인하기 바쁜 모습이었다.

의외로 날씨가 더워 그 큰 궁을 이곳저곳을 돌아다니기엔 입주자 분들이 체력적으로 무리가 될까 걱정되어 중간에 궁을 나와 그늘에서 다 같이 쉬었던 기억이 있다.

1박2일 한옥스테이 교류여행은 입주자분들에게 있어서 좋은 추억으로 남은 여행이 되었다. 입주자 정○○씨는 2박3일로 다시 또 한 번 가고 싶다는 이야길 하였고, 입주자 신○○씨는 게임도 하고 예쁜 한복을 입고 돌아다니는 것이 너무 좋았다고 하였으며, 입주자 김○○씨는 항상 새로운 경험을 하는 것은 나에게 특별한 것이라 하시며 다시 한 번 우리식구들 끼리 다녀오고 싶다는 말을 하셨다.

이렇게 많은 입주자분들이 참여한 1박2일 1권역 교류여행 한옥스테이 체험의 여행은 끝이 났다. 아직까지도 입주자분들은 여행을 추억하시며 이야기를 많이 하시는 모습이 시고, 교류 여행 덕분에 한옥의 멋과 궁의 웅장함을 느낄 수 있어 좋았던 시간 이였다. 기회가 되면 다시 한 번 교류여행을 진행하는 것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 보았다.



제10회 한국 DPI

장애인당사자 심포지엄에 참석하다.

전 난희



제10회 한국 DPI 장애인당사자 심포지엄
식전 행사



제10회 한국 DPI 장애인당사자 심포지엄에
참석한 강북센터 직원들

올해로 10회를 맞이한 DPI대회는 2017년 11월 15일부터 16일까지 ‘제10회 한국 DPI 장애인당사자 심포지엄’이라는 제목으로 대방동 여성프라자에서 개최되었다.

국내외 많은 패널들이 ‘제10회 한국 DPI 장애인당사자 심포지엄’에 참여하였고, 나사렛대 재활복지대학원 김종인 원장님이 좌장으로 심포지엄을 이끄셨다. ‘통계, 정책, 장애인 인권’이라는 주제로 SECTION 1이 꾸며졌으며 그 내용으로는 ‘장애인의 건강한 삶, 인권, 통계’에 관한 내용을 국립재활원재활연구소 호승희 재활표준연구과장께서 발제하였고, ‘장애관련 실태조사의 현황과 과제’를 경기복지재단 이병화 연구위원께서 발제하였다.

‘제10회 한국 DPI 장애인당사자 심포지엄’에 본격적인 토론에서는 ‘통계, 정책, 장애인 인권 토론문’을 대구대학교 직업재활학과 이달엽 교수가 발표하였고, ‘장애인의 건강한 삶, 생존(집단)의 욕구에서 문화(개별)의 욕구로 전환’에 내용으로 한국접근가능한관광네트워크 전운선 대표가 발표하였다. 이어 ‘통계를 통해 바라본 여성장애인의 인권과 그 과제’로 한국DPI 나은화 여성위원회 위원장께서 발표하였다.



‘장애인의 건강한 삶, 인권, 통계’에 관한 내용을 이병화 연구위원이 발제하는 모습



‘장애인의 건강한 삶, 인권, 통계’에 관한 내용을 호승희 재할표준연구과장이 발제하는 모습

토론에 이어 SECTION II에서는 ‘해외 장애인 통계 구축과 활용’이라는 주제로 진행되었다. ‘UN장애인권리협약에 기반을 둔 독일의 장애인 통계’ 내용으로 독일 : 도르트문트대학 특수교육 김용진 박사가 발표하였다. ‘일본의 장애인 통계 통계를 정책에 살리기 위해’란 주제로 일본사회보장연구소 사기구에 근무하고 있는 유끼코 카츠마타 연구원이 발표하였고, ‘장애인 성별에서 보이는 것’ 간사이대학 사회복지과 카노 케이코 교수가 발표를 하였다.



‘UN장애인권리협약에 기반을 둔 독일의 장애인 통계’에 관한 내용을 김용진 박사가 발표하는 모습



일본 패널 유끼코 카츠마타 연구원과 카노 케이코 교수가 ‘해외 장애인 통계 구축과 활용’에 관한 내용을 발표하는 모습

이번 ‘제10회 한국 DPI 장애인당사자 심포지엄’에서는 우리나라의 장애인관련 통계의 현황과 문제점 등을 제시하고 앞으로 해결방법 등을 토론을 통해 알아보았으며, 해외사례 등을 살펴봄으로써 우리나라의 실정에 맞는 통계조사방법과 장애관련 하여 꼭 필요한 통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살펴볼 수 있었다. 정부에서 실행하는 전반적인 통계에서 장애인은 빠져있다는 사실에 입각하여 완전한 통계와 실질적인 정책, 그리고 장애인 인권실현에 관한 문제점 등을 자각하고, 장애에 관한 통계를 구축하여 정부정책에 있어 전반적으로 반영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길 바란다. 정부 정책관련 모든 통계에서 장애인에 관한 통계가 전반적인 정책에 반영될 수 있길 바라는 마음이다.

신체변형 장애의 개념과 요인

허효숙

1. 신체변형장애의 개념과 특징

정상 용모를 가진 사람이 자신의 용모에 대해 상상적으로 변형이나 결손 등 문제가 있다는 생각 또는 사소한 결손을 과장되게 변형된 것으로 보는 생각 등에 집착하는 증상이 나타나는 상태를 말한다. 즉 신체적 변형 또는 결손이 있다고 상상하면서 그러한 생각에 몰두하는 것을 특징으로 말하며 이를 신체 추형 장애라고 지칭한다. 경미한 신체적 변형이나 결손이 있을 수도 있지만 이를 확대 왜곡하는 경우를 보인다. 주로 성형외과, 피부과, 내과에 내원하여 미용수술이나 원하는 치료를 요구하는 경향이 있다. 신체변형장애자들은 일반적으로 얼굴 특성에 대해서 기형적이라고 생각하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된다. 대부분 성형수술을 원하고 성형수술 후에도 모습의 결과에 불만족하거나 다른 신체적 특징에 관해 집착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얼굴부분이 외에도 유방, 엉덩이, 손, 발, 성기 등과 같은 다른 신체 부위도 관심의 초점으로 나타난다. 신체변형장애의 사람은 신체적 기형 때문에 심한 열등감과 낮은 자신감으로 대인관계에서 위축행동을 보이고 또 자신의 외모를 과도하게 치장하는 행동에 많은 시간을 보내는 경향이 있다.

2. 유병률

일반 인구에서의 유병률은 확실치 않다. 미용수술을 원하는 환자의 2%에서 질환의 진단이 내려진다는 보고가 있다. 발병은 15-20세 사춘기에 가장 흔하다. 남자에 비하여 여성의 유병률이 높다. 미혼여성에게 더 자주 발생한다. 증상시작은 갑자기 나타나고 점진적일 수도 있다. 외모에 관한 타인들의 언급(예: 코가 납작하군요)이 피부과나 성형외과를 찾도록 촉발한다. 연구결과 이 질환의 90%이상에서 주요 우울증이 공존한다고 최신정신의학(1996)에서 보고하였다.

3. 신체변형장애의 요인

일반적으로 신체변형장애의 병인은 미상임이 밝혀졌다. 다른 정신질환(정신분열증 기분장애)때문일 수도 있다고 지적되고 있다. 특정 신체부위에 무의식적으로 큰 의미를 주는 것은 어린 시절의 정신성적 발달기의 특수한 경험 때문이다. 정신분석적 견해에

서는 어린 시절, 심리성적 발달과정에서 특수한 경험을 하게 되고 이러한 경험과 상징적인 연관성을 지닌 특정한 신체부위에 집착하게 되는 것이라고 보고 있다. 즉 무의식적인 성적 또는 정서적 갈등이 관련이 없는 신체부위에 대치되어 나타난다고 밝히고 있다.

인지적 견해에서는 우연한 사건 때문에 신체적 특성에 주목하게 되고 이에 선택적 주의를 하면서 신체적 특성이 점점 심각한 것으로 지각해석하게 됨으로써 점점 더 신체적 기형에 대한 확신을 굳혀 가게 되는 경우라고 본다. 생물학적 견해에서는 serotonin과 관련되어 있다고 설명한다. 신체변형장애는 그 사회와 문화가 미모에 대한 개념정의의 어떨게 하는가가 중요한 의미와 영향을 미친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다시 말하면 신체변형장애가 사회문화적 변화 요인과 깊은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4. 진단

- A. 외모에 대한 상상의 결함이 있다는 집착, 만약 신체적인 기형이 약간 있더라도 환자의 집착은 과도한 것이다.
- B. 집착은 사회적, 직업적 혹은 다른 중요한 분야의 기능에 임상적으로 유의한 고통과 손상을 일으킨다.
- C. 집착은 다른 정신장애(예 : 신경성 식욕부진 중에서 몸의 형태와 크기에 불만족)에 의해 더 잘 설명되지 않는다.

5. 치료적 접근

신체변형장애치료에 효과적인 치료접근 방법이 최근 보고되고 있기도 하다. 세로토닌 재흡수 억제제(예: Clomipramine, Fluvoxamine)를 사용한 약물로서 신체변형장애를 지닌 환자의 증상감소를 나타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인지행동 치료법으로서 노출 및 반응 억제법은 경미한 증상을 가진 신체변형장애자의 치료에 효과적임을 밝힌 바 있다.

참고문헌.

[신체변형장애] 신체변형 장애의 개념 및 요인 신체변형장애 진단과 치료적

<http://blog.naver.com/dbsalwltjs/220383163910>

<http://blog.naver.com/eun770129/221106807096>

[본 글은 본인에 개인적인 견해일 뿐 센터와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이달의 정보

수급자 부양의무자 기준완화(단계적 폐지)

1. 추진배경 :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인해 수급을 받지 못하는 '비수급 빈곤층' 해소를 위해 부양의무자 기준을 단계적으로 폐지

2. 구체적 폐지 방안

- 1단계 : 2017.11월 시행

다음의 A, B 모두 만족

A 수급자 : 만65세 어르신, 중증장애인 포함가구

B 부양의무자 : 기초연금 및 장애연금 수급권자, 중증 장애아동(20세 이하) 포함가구

- 2단계 : 2019년 1월 시행

다음의 A, B 모두 만족

A 수급자 : 만65세 어르신, 중증장애인 포함가구

B 부양의무자 : 기초연금 수급권자 및 중증 장애인 포함가구

- 3단계 : 2022년 1월

다음의 A, B 모두 만족

A 수급자 : 만65세 어르신, 중증장애인 포함가구

B 부양의무자 : 만65세 어르신, 중증장애인 포함가구

출처-

<http://www.gangbuk.go.kr/beon2/boardView.do?post=466780&page=&boardSeq=281&key=1159&category=&searchType=&searchKeyword=&searchFile=&subContents=&part=&part=30800500000&ite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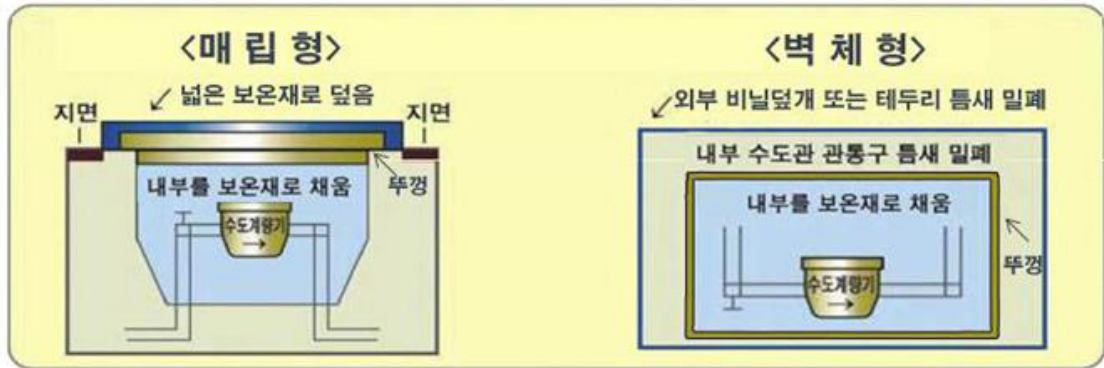
수도계량기 동파예방 요령 안내

겨울철 수도계량기가 얼면 수돗물이 나오지 않아 불편을 겪게 됩니다.
수도계량기가 얼지 않도록 미리 미리 계량기보호통을 보온해 주세요.

계량기 동파예방 방법

- ① 계량기보호통 내부의 수도관 관통구 등 틈새를 밀폐한다.
- ② 계량기보호통 내부를 에어캡(뽁뽁이) 등의 보온재로 채운다.
- ③ 뚜껑부분은 보온재 또는 비닐덮개 등으로 넓게 밀폐한다.
- ④ 혹한 시에는 수돗물을 조금씩 흐르게 수도꼭지를 틀어 놓는다.
- ⑤ 계량기보호통 뚜껑 및 보온재가 파손되지 않도록 한다.

계량기보호통 보온 방법



계량기 및 수도관이 얼었을 때 조치요령

- ① 따뜻한 물수건으로 수도계량기 등을 감싸주거나, 미지근한 물부터 점차 따뜻한 물로 녹이면 됩니다.
※ 50℃이상의 뜨거운 물로 계량기를 녹이면 높은 열에 의해 고장이 발생 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② 계량기가 얼어서 유리가 깨지면 수도사업소에 신고하셔야 합니다.

계량기 동파신고: 다산콜 ☎ 120

아리수 북부수도사업소: ☎ 3146 - 3200

겨울철 단계별 행동요령

□단계구분(일 최저기온)

① 단계 동파관심	⇒	② 단계 동파주의	⇒	③ 단계 동파경계	⇒	④ 단계 동파심각
일 최저기온 -5℃ 이상		일 최저기온 -5℃ 미만~10℃ 이상		일 최저기온 -10℃ 미만 -15℃ 이상		일 최저기온 -15℃ 미만

□ 단계별 행동요령

단 계	행 동 요 령
① 단계 동파관심	■ 수도계량기 보호통을 에어캡(백백이) 등으로 채워 외기 차단 ■ 외부 노출 수도관, 화장실 및 보일러 등 보온재(하드론, 아티론) 등으로 노출 부위를 감싸 외부 찬 공기로부터 보호
② 단계 동파주의	■ 수도계량기, 노출 수도관, 화장실 및 보일러 등 보온상태 재점검
③ 단계 동파경계	■ 장기간 집을 비울 때는 보온조치를 하였더라도 수돗물이 아주 조금씩 흐를 정도로 욕조 등의 수도꼭지를 개방
④ 단계 동파심각	■ 장기간은 물론 일시 외출, 야간 등 단기간 수돗물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 보온조치를 하였더라도 수돗물이 아주 조금씩 흐를 정도로 욕조 등의 수도꼭지를 개방

출처-

<http://www.gangbuk.go.kr/beon2/boardView.do?post=469080&page=&boardSeq=41&key=1160&category=&searchType=&searchKeyword=&searchFile=&subContents=&part=&part=&item=#>

상습안개구간

라지영

어제라는 건 공회전이고
이제는 아는 척할 수 있다
어느 방향으로 향해도
어차피

마지막의 마지막 걸음은
그가라고 이름 지어지고
대부분의 분심은
너무 사소해서
부끄를 올릴 수 없다

잃어버리는 것들:
팽팽하지 못한 오감
깜빡이는 불의 꺼져있는 순간
연세 위에 잔류하던 모든 것들
모든 기꺼운 것들

좋아할수록 잃어버리기 쉽고
한 번에 얼마든지 잃어버릴 수 있고
잘 잃어버리는 사람에게겐 진부한
이런 공허가 가끔은 지나치게 뽀족했다
펜촉처럼
배우지 않아도 아는 부등호처럼
떨리는 시간
굳어 가는 시간
세상은 역시 테두리일까
비쪽비쪽 웃으며 나를 옹대하는 너
그리고 나 자신의 밑창은 너를 도와
기쁨에 초를 친다

강북장애인자립생활센터CMS자동이체 신청서

◆ 수납업체 및 목적 (수납업체 기재란)			
수납업체	강북장애인자립생활센터	수납목적	회원회비
대표자	정종남	사업자등록번호	210-82-68864
주소	서울시 강북구 도봉로 328 (가든타워) 1119호		
◆ 자동이체 신청내용 (신청고객 기재란)			
신청정보	신청인	예금주와 관계 : ()	연락처
	납부금액	☐ 고정금액 (원) ☐ 변동(추가 계약내용에 따름)	납부일 매월 25 일 *미납시 일, 일 재출금
금융거래정보	은행명	예금주	
	계좌번호		
	예금주생년월일		
개인정보	예금주 휴대전화번호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등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 수집 및의 이용목적 : 효성CMS 자동이체를 통한 요금 수납 수집항목 :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 은행명, 예금주명, 계좌번호, 예금주 휴대전화번호 보유 및 이용기간 : 수집/이용 동의일 부터 자동이체 종료일(해지일)까지 신청자는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단, 거부 시 자동이체 신청이 처리되지 않습니다.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활용동의	개인정보 제3자 제공동의	◇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효성에프엘에스㈜, 금융기관(하단 신청가능은행 참조), 통신사(SKT, KT LGU+, CJ헬로비전)등,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게시(www.efnc.co.kr/제휴사 소개 메뉴 내)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이용 목적: 자동이체서비스 제공 및 자동이체 동의 사실 통지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 은행명, 예금주명, 계좌번호, 예금주 휴대전화번호 개인정보를 제공 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동의일 부터 자동이체의 종료일(해지일)까지. 단, 관계 법령에 의거 일정기간 동안 보관 신청자는 개인정보에 대해 수납업체가 제 3자에 제공하는 것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단, 거부 시 자동이체 신청이 처리되지 않습니다.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 자동이체 동의여부 동의지 안내 : 효성에프엘에스㈜ 및 금융기관은 안전한 서비스의 제공을 위하여 예금주 휴대전화번호로 자동이체 동의 사실을 SMS(또는 LMS)로 통지합니다. 신청인(예금주)은 신청정보, 금융거래정보 등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및 제 3자 제공에 동의하며 상기와 같이 강북장애인자립생활센터 회원회비 납부를 위해 효성CMS 자동이체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또는 (서명) (신청인과 예금주가 다를 경우) 예금주 : (인) 또는 (서명)			

17년 11월 회비납부 명단

김숙이	김은미	안해영	임상욱	주영경	김낙현	김소연
김용자	김은순	문지수	박동열	배소영	손연숙	안병훈
오재준	이상훈	이영훈	장민정	전난희	정민자	정종남
정주영	최윤숙	최전균	허효숙	홍점표	김석현	김재환
		박민숙	윤두선	이하용		

회비 납부에 감사드립니다.

2017년 강북장애인자립생활센터 평가회에 초대합니다!



강북장애인자립생활센터에서는 특화사업의 일환으로 2017년 강북센터 평가회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번 평가회는 2017년 한 해에 대한 사업평가 및 함께 마무리하는 자리를 마련하고자 진행하오니, 많은 분들의 참석바랍니다.

일 시 : 2017년 12월 14일(목) 14:00 ~ 17:00

장 소 : 강북문화예술회관 행복실 (서울 강북구 삼각산로 85)

참여대상 : 강북센터 이용자 및 회원 100여명

행사계획

시 간	행 사 내 용	비고
14:00~14:15	참여자 방명록 작성	1부
14:15~14:30	내빈소개 및 축사	
14:30~14:45	단체사진 촬영 및 휴식시간	
14:45~16:00	2017년 강북센터 평가회 진행	2부
16:00~16:30	질의응답	
16:30~17:00	마무리 및 폐회사	

※ 위 일정은 센터 상기 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기타문의 : 강북장애인자립생활센터 사업담당 주영경 주임

☎ 02-908-7776 ✉ kbcil@daum.net

• 연락처: 02-908-7776

• 팩스: (0303) 0799-1758

• 홈페이지: <http://kbcil.co.kr>

• 주소: 서울특별시 강북구 도봉로 328 가든타워 1119호

서울특별시 강북구 도봉로 328 가든타워 1119호 (지하철4호선 수유역 3번 출구)

Tel : 02-908-7776 FAX : 0303-0799-1758

